

# 2015 미소 선생의 지방직 7급 해설

1. 밑줄 친 부분 중 음운의 탈락 현상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 ① 지난해 새로 집을 지었다.
- ② 잘 우는 남자는 매력이 없다.
- ③ 그는 사과문을 써서 벽에 붙였다.
- ④ 국이 뜨겁고 매워서 먹지 못하겠다.

답) ④. [난이도 중, 현대문법] - 예상한 문제 유형  
 용언 ‘맷다’ 에 연결어미 ‘-어서’ 가 결합해 ‘매워서’ 가 된 것은 ‘ㅂ 불규칙’ 이 활용한 것으로 이것은 어간이 변한 것으로 ‘ㅂ’ 이 완전히 탈락했다고 할 수는 없다.

- ① ‘짓다’ 는 ‘ㅅ 불규칙’ 용언으로 활용할 때 ‘ㅅ’ 이 탈락한다.
- ② ‘울다’ 의 어간 ‘울’ 은 ‘ㄴ’ 앞에서 탈락한다.
- ③ ‘쓰다’ 에 연결어미 ‘-어서’ 가 결합해 ‘-어’ 가 탈락한 것이다.

2. 다음 중 문장을 잘못 고친 것은?

- ①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맙시다. → 실내에서 담배를 피지 맙시다.
- ② 사용 후 반듯이 물을 내려 주십시오. → 사용 후 반드시 물을 내려 주십시오.
- ③ 화장실을 깨끗이 사용합시다. → 화장실을 깨끗이 사용합시다.
- ④ 지나친 흡연을 삼가합시다. → 지나친 흡연을 삼갑시다.

답) ①. [난이도 하, 맞춤법] - 예상한 문제 유형  
 ‘피우다’ 는 어떤 물질에 불을 붙여 연기를 빨아들이었다가 내보내다는 의미의 타동사로 목적어가 있어야 한다. ‘담배를’ 이라는 목적어가 있으므로 ‘~ 담배를 피우지 맙시다.’ 가 옳은 표현이다.

- ② · 반듯이: 작은 물체, 또는 생각이나 행동 따위가 비뚤어지거나 기울거나 굽지 아니하고 바르게.  
 · 반드시: 틀림없이 꼭.
- ③ ‘-하다’ 로 끝나는 말의 어근이 ‘ㅅ’ 일 때는 부사화 접미사 ‘-이’ 가 결합한다. ‘깨끗이’
- ④ ‘삼가하다’ 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 ‘삼가다’ 가 옳다.

3. 밑줄 친 단어의 품사가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 ① 금고 가득히 눈부신 금괴가 쌓여 있었다.
- ② 바람이 가볍게 부는 날씨에 기분 좋았다.
- ③ 소인은 없이 사는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
- ④ 반죽이 되게 묽어 국수 만들기가 힘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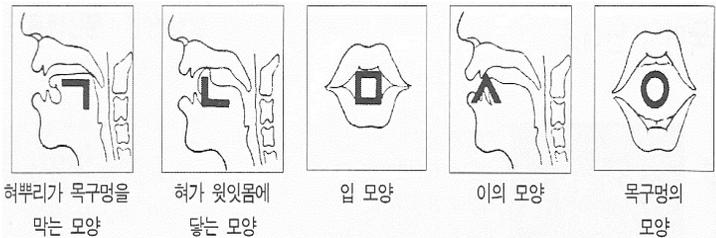
답) ②. [난이도 상, 현대문법] - 예상한 문제 유형  
 ‘가볍게’ 는 형용사 ‘가볍다’ 가 부사형으로 활용한 것이다. 즉 품사는 ‘형용사’ 가 된다. 나머지는 모두 부사에 해당한다.

4. 훈민정음 28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초성의 기본자는 발음기관을 상형한 ‘ㄱ, ㄴ, ㄷ, ㄱ, ㅇ’ 이다.
- ② 초성 17자에는 전탁자 ‘ㄱ, ㄸ, ㅃ, ㅆ, ㅈ, ㅊ’ 도 포함된다.
- ③ 중성의 기본자는 ‘天, 地, 人’ 을 상형한 ‘·, ㅡ, ㅣ’ 이다.
- ④ 중성 11자에는 재출자 ‘ㅊ, ㅋ, ㆁ, ㆁ’ 도 포함된다.

답) ②. [난이도 하, 고전문법] - 예상한 문제 유형  
 훈민정음 17자에는 전탁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 초성 17자



五 音	기본자	가획자	이체자
아음(牙音)	ㄱ	ㅋ	ㆁ
설음(舌音)	ㄴ	ㄸ → ㄹ	ㄹ(반설음)
순음(脣音)	ㄷ	ㅃ → ㅍ	
치음(齒音)	ㅅ	ㅆ → ㅈ	ㅈ(반치음)
후음(喉音)	ㅇ	ㆁ → ㆁ	

- 중성 11자

기본자	제자 원리	초출자 (初出字)	재출자 (再出字)
·	하늘의 둥근 모양(形之圓 家乎天也) - 혀를 오므림(소리가 깊음)	ㅏ, ㅑ	ㅓ, ㅕ
ㅡ	땅의 평평한 모양(形之平 家乎地也) - 혀를 조금 오므림(소리가 깊지도 얕지도 않음)	ㅗ, ㅛ	ㅜ, ㅠ
ㅣ	사람의 서 있는 모양(形之立 家乎人也) - 혀를 안 오므림(소리가 얕음)		





답) ③. [난이도 하, 글의 순서] - 예상한 문제 유형  
사회 계층의 정의(나) - 반상의 구분이 있었던 전통 사회에서 언어도 달랐다(다) - 계층관계가 확연하지 않은 현대 사회(가) - 사회계층에 따른 언어 변이를 확인하려는 예(라) 순이 적절하다.

11. 어법에 맞는 문장은?

- ① 인간은 자연을 지배하기도 하고 복종하기도 한다.
- ② 북극의 빙하는 수십 년 내에 없어질 것으로 예측되어졌다.
- ③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요소 중 하나는 인문학적 상상력이다.
- ④ 교육부는 새 교과서를 편찬함에 있어서 전인교육의 충실화에 두었다.

답) ③. [난이도 하, 자연스러운 문장] - 예상한 문제 유형

- ① 복종의 대상이 불분명하다. ‘인간은 자연을 지배하기도 하고, 자연에 복종하기도 한다.’
- ② ‘되어지다’는 이중피동으로 옳은 표현이 아니다. ‘북극의 빙하는 수십 년 내에 없어질 것으로 예측되었다.’
- ④ 전인교육의 충실화가 무엇인지 불분명하다. ‘교육부는 새 교과서의 교육 목표를 전인교육의 충실화에 두었다.’

12. 동일한 의미의 복수 표준어가 아닌 것은?

- ① 짜장면/자장면                      ② 간지럽히다/간질이다
- ③ 복숭아뼈/복사뼈                    ④ 손주/손자

답) ④. [난이도 중, 표준어] - 예상한 문제 유형

· 손주: 손자와 손녀를 아울러 이르는 말  
· 손자: 아들의 아들. 또는 딸의 아들  
2011년에 손주를 별도 표준어로 인정했다. 이것은 동일한 의미가 아닌, 별도의 표준어가 된 것이다.

13. 상대되는 의미로 짝지어지지 않은 것은?

- ① 失笑 - 笑殺                          ② 訥辯 - 能辯
- ③ 稀薄 - 濃厚                          ④ 困難 - 順坦

답) ①. [난이도 중, 어휘-한자] - 예상한 문제 유형

· 失笑(실소): 어처구니가 없어 저도 모르게 웃음이 툭 터져 나옴. 또는 그 웃음.  
· 笑殺(소살): 웃어넘기고 문제 삼지 아니함. 큰 소리로 비웃음.  
② 訥辯(눌변): 더듬거리는 서툰 말솜씨.  
能辯(능변): 말을 능숙하게 잘함. 또는 그 말.  
③ 稀薄(희박): 어떤 일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적음.  
濃厚(농후): 어떤 경향이나 기색 따위가 뚜렷함.  
④ 困難(곤란): 사정이 몹시 막하고 어려움. 또는 그런 일.  
順坦(순탄): 삶 따위가 아무 탈 없이 순조로움.

14. 다음 글에서 강조하는 덕목과 가장 가까운 것은?

子路曰, “君子尙勇乎?” 子曰, “君子義以爲上. 君子有勇而無義爲亂, 小人有勇而無義爲盜.”  
- 論語, 陽貨 -

- ① 惻隱之心
- ② 羞惡之心
- ③ 辭讓之心
- ④ 是非之心

답) ②. [난이도 상, 한문] - 예상한 문제 유형

‘義(의)’와 관련된 것을 찾으면 된다. ‘羞惡之心(수오지심)’이 적절하다.

子路曰(자로왈), “君子尙勇乎(군자상용호)?” 子曰(자왈), “君子義以爲上(군자의이위상). 君子有勇而無義爲亂(군자유용이무의위란), 小人有勇而無義爲盜(소인유용이무의위도).”

- 자로가 말했다. “군자는 용맹함을 숭상합니까?” 공자가 말했다. “군자는 도의를 숭상한다. 군자가 용맹하지만 도의가 없으면 난을 일으키고, 소인이 용맹하지만 도의가 없으면 도적이 된다.”

- ① 惻隱之心(측은지심) - 仁(인)
- ③ 辭讓之心(사양지심) - 禮(예)
- ④ 是非之心(시비지심) - 智(지)

15. 밑줄 친 ㉠~㉢ 중 어문 규정에 부합하는 것은?

목적: 신도시 ㉠제2 단계 건설 사업의 교통 영향 평가 심의 결과에 따라 지하 차도, 고가 차도 및 외곽 도로의 폭을 넓히고, 서해안 고속도로 진입로를 ㉡개설함으로써 사업 지역 주변의 교통 시설을 확충하여 도시 교통을 원활히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① ㉠
- ② ㉡
- ③ ㉢
- ④ ㉣

답) ①. [난이도 중, 맞춤법] - 예상한 문제 유형

- ② ‘-므로써’는 없다. ‘개설함으로써’
- ③ ‘데’는 의존명사로 띄어 써야 한다. ‘처리하는 데’
- ④ 명사형 어미는 ‘-음’이다. ‘있음’

16. 다음 글의 괄호 안에 들어갈 사자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일 있을 한국시리즈는 시작 전부터 여러 사람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결승에서 만난 두 팀의 감독이 예전에 한술밥을 먹던 사이였기 때문입니다. A팀의 감독은 한때 B팀의 감독 밑에서 선수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A팀의 감독은 시합에서 양보는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형만 한 아우가 없다는 말이 맞을지, ( ) (이)라는 말이 맞을지, 내일의 경기 결과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 ① 管鮑之交                      ② 犬猿之間
- ③ 靑出於藍                      ④ 草綠同色

답) ③. [난이도 하, 한자성어] - 예상한 문제 유형

감독 밑에서 선수생활을 했기 때문에 스승보다 제자가 뛰어날 것인지 해당하는 한자성어를 찾으면 된다. ‘靑出於藍(청출어람)’ 이 적절하다.

- ① 管鮑之交(관포지교): 관중과 포숙의 사귀이란 뜻으로, 우정이 아주 돈독한 친구 관계를 이르는 말.
- ② 犬猿之間(견원지간): 개와 원숭이의 사이라는 뜻으로, 사이가 매우 나쁜 두 관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④ 草綠同色(초록동색): 풀빛과 녹색(綠色)은 같은 빛깔이란 뜻으로, 같은 처지(處地)의 사람과 어울리거나 기우는 것

17. 다음은 보고서의 목차이다. 내용상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제목: 세계화 시대의 한국어 발전 방안

I. 세계화의 개념 및 사업의 배경

- 1. 세계화의 정의 및 유관 개념
- 2. 세계 문자사와 한글의 창제 원리 ..... ㉠
- 3. 한국어 세계화 사업의 필요성 ..... ㉡

II. 한국어 세계화 사업의 실태

- 1. 정부 기관에 의한 세계화 사업
- 2. 민간 기관에 의한 세계화 사업 ..... ㉢

III. 기존 사례들의 문제점 검토

- 1. 예산의 부족과 전문가 확보의 미비
- 2. 한류 중심의 편향적 사업 계획
- 3. 장기적 전망이 결여된 사업 진행 ..... ㉣

IV. 한국어 세계화를 위한 개선 방안

⋮

- ① ㉠                                      ② ㉡
- ③ ㉢                                      ④ ㉣

답) ①. [난이도 하, 개요작성] - 예상한 문제 유형

‘세계 문자사와 한글의 창제 원리’는 ‘세계화의 개념 및 사업의 배경’과 특별한 관련이 없다. 삭제하는 것이 옳다.

18. 다음 글의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에서 스탠리 큐브릭은 영화 음악으로 상당한 예술적 성과를 거두었다. 원래 큐브릭은 알렉스 노스에게 영화 음악을 의뢰했었다. ( ㉠ ) 영화를 편집할 때 임시 사운드 트랙으로 채택했던 클래식 음악들에서 만족스러운 효과를 얻자 그는 그 음악들을 그대로 영화에 사용했다. ( ㉡ ) 요한 슈트라우스의 ‘아름답고 푸른 다뉴브’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가 인간이 우주를 인식하고 새로운 경지의 정신에 다다른 경이로운 장면들에 배경 음악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클래식 음악이 대중적인 오락물과 결합할 때, 그 음악은 평이한 수준으로 전락해 버리는 것이 흔한 일이다. ( ㉢ ) 큐브릭의 영화는 이미지와 결부된 클래식 음악의 가치가 높아진, 거의 유일한 경우이다.

㉠      ㉡      ㉢

- ① 그러나 그리고 그런데
- ② 하지만 그래서 그러나
- ③ 그런데 그리고 그러나
- ④ 그래서 그런데 하지만

답) ②. [난이도 하, 접속부사] - 예상한 문제 유형

- 앞의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을 이꿀 때 쓰는 접속 부사로 ‘그런데’를 쓴다.(㉠)
-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원인이나 근거, 조건 따위가 될 때 쓰는 접속부사로 ‘그래서’를 쓴다.(㉡)
-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상반될 때는 쓰는 접속 부사는 ‘그러나’를 쓴다.(㉢)

19. 다음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호박넝쿨에 싸오는 붕어곰은 언제나 맛있었다  
부엌에는 빨갭게 질들은 팔(八)모알상이 그 상 우엔 새파란 싸리를 그린 눈알만한 잔(盞)이 뵈였다  
아들아이는 범이라고 장고기를 잘 잡는 앞니가 빠드러진 나와 동갑이었다  
울파주 밖에는 장꾼들을 따라와서 엄지의 젖을 빼는 망아지도 있었다

-백석, 주막 -

- ① 색채의 대비를 통하여 풍경을 강렬하게 그려 내고 있다.
- ② 지역어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지역적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대상의 구체적인 묘사를 통해 유년 시절의 추억을 회상하고 있다.
- ④ 어린 아이와 어른의 시각을 대비하여 사건을 생생하게 보여 주고 있다.

답) ④. [난이도 하, 현대시] - 예상한 문제 유형

시적 화자는 어린 아이로 어른의 시각은 찾을 수 없다.

- ① 빨갈게, 새파란
- ② 봉어곰, 장고기, 울파주, 엄지
- ③ 갈게 질들은 팔(八)모알상이, 눈알만한 잔(盞)이, 앞니가 빠드러진

20.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람들은 약속이나 한 듯 말을 잊었다. 어쩌면 그들은 열차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조차 망각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중년 사내는 담배를 입에 문 채 성냥불을 땀기려다 말고 멍하니 난로의 불빛을 들여다보고 있다. 노인을 안고 있는 농부도, 대학생도, 쭈그려 앉은 아낙네들도, 서울 여자도, 머플러를 쓴 춘심이도 저마다의 손바닥들을 불빛 속에 적셔 두고 망연한 시선을 난로 위에 모은 채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저만치 홀로 떨어져 앉아 있는 미친 여자도 지금은 석고상으로 고요히 정지해 있다. 이따금 노인의 기침 소리가 났고, 난로 속에서 톱밥이 툭툭 튀어 올랐다.

“흐유, 산다는 게 대체 뭣이간다…….”

불현듯 누군가 나직이 내뱉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 말꼬리를 붙잡고 저마다 곰곰이 생각해 보기 시작한다. 정말이지 산다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중년 사내에게 산다는 일이 그저 벽돌담 같은 것이라고 여겨진다. 햇볕도 바람도 흘러들지 않는 폐쇄된 공간. 그곳엔 시간마저도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마치 이 작은 산골 간이역을 빠른 속도로 무심히 지나쳐 가 버리는 특급 열차처럼……. 사내는 그 열차를 세울 수도 탈 수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기다릴 도리밖에 없다는 것, 그것이 바로 앞으로 남겨진 자기 몫의 삶이라고 사내는 생각한다.

- 임철우, 사평역 중에서 -

- ① 등장인물들이 서로 갈등하는 계기의 역할을 한다.
- ② 등장인물들이 자신의 삶을 기구하게 만드는 원인의 역할을 한다.
- ③ 등장인물들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도록 하는 촉매의 역할을 한다.
- ④ 등장인물들이 자신의 삶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

답) ③. [난이도 하, 현대소설] - 예상한 문제 유형

‘그러자 사람들은 그 말꼬리를 붙잡고 저마다 곰곰이 생각해 보기 시작한다. 정말이지 산다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를 참조할 때 산다는 게 무엇일까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삶을 되돌아 보는 촉매의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미소 내공

이 소설을 객재구의 시 ‘사평역에서’의 토대 위에 작가의 상상력을 더하여 쓴 작품이다. 사평역에서 막차를 기다리는 인물들은 천식 환자인 노인과 그의 아들, 12년 만에 감옥에서 출감한 중년 사내, 청년과 미친 여자 등. 저마다 고단하고 험겨운 삶을 이어가는 인물들이다. 이들의 아위고 지친 모습들은 하얗게 쏟아지는 눈발 속에서 연착되는 기차와 함께 적막한 분위기를 형성한다. 하지만 그들을 향한 역장의 따뜻한 시선을 통해 우리는 그들의 삶에 담긴 의미를 되돌아보게 된다. 그런 점에서 사평역의 중심에 놓인 ‘톱밥 난로’는 그들을 감싸는 공동체의 따뜻한 사람과 위로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총평** : 2015년 지방직 국어 시험은 약간 까다롭게 출제되었다. 공부한 학생과 공부하지 않은 학생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국어규범과 관련된 것이 7문항 출제되었다. 이것은 작년보다 1문제 늘었다. 이 영역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출제될 것임으로 수험생은 반드시 세밀하게 정리해 두어야 한다. 특히 품사를 구분하는 문제가 어려웠을 것으로 사려된다. 읽기는 4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이는 작년과 동일했고, 지문이 평이하고 짧아 그리 어렵지 않았다. 이 영역은 생소한 지문을 평소에 지속적으로 읽는 연습을 해야 한다. 문학은 현대소설, 현대시 등 4문제가 출제되었다. 작년보다 1문제 줄었다. 문학의 기초 감상법을 중심으로 작품을 접근하는 방법을 잘 익혀둔 학생은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었다. 어휘는 3문항 출제되었는데, 작년과 동일한 문제수인데, 고유어의 의미를 묻는 문제는 상당히 까다로웠다. 그러나 사전에 있는 모든 어휘를 다 외울 수는 없다. 평소에 어휘량을 최대한 많이 익혀두는 학습전략이 필요하다. 작년에 이어 7급 수험생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한문이 2문제 출제되었다. 이것은 작년보다 1문제 늘어난 것으로 명문이었지만 수험생들은 어려웠을 것으로 사려된다. 앞으로도 한문은 잘 알려진 명문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교재에 있는 한문 정도는 완벽하게 해석하는 학습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한자는 매일 독음 위주로 읽는 태도가 있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2015년 7급 지방직은 수험생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한문과 품사 그리고 어휘 등이 까다로워 체감 난도는 어려웠을 것으로 분석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난도 상인 문제가 3문제, 난도 중인 문제가 6문제, 난도 하인 문제가 11문제 출제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므로 최상위권 학생들은 85점 이상을 받아야 하며, 실수를 감안하더라도 국어 점수는 80점 정도는 나와야 합격할 수 있는 시험으로 분석된다.